

『晴窓軟談』의 합리적 分析과 再構를 위한 연구

강민구*

< 目 次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晴窓軟談 下』의 내적 특징 |
| II. 『晴窓軟談 上』의 내적 특징 | V. 결론 |
| III. 『晴窓軟談 中』의 내적 특징 | |

< 국문 초록 >

申欽의 『晴窓軟談』은 이전 시기의 시화서 편찬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당시의 활발한 시화집 편찬의 풍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 선조의 명으로 『海東詩賦選』 편찬에 참여하였던 것도 『청창연담』의 편찬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흠이 『청창연담』의 편찬에 적극 활용한 도서는 『容齋隨筆』, 『詩人玉屑』, 『文獻通考』, 『西湖遊覽志』, 『山堂肆考』, 『唐詩品彙』, 『唐詩拾遺』이다. 다만, 그것들을 참고 문헌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창연담 上』은 총40則에서 당나라 시인 45명과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논평하였고, 『청창연담 中』은 총42칙에서 중국 시인 43명과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그리고 『청창연담 下』는 총70칙에서 중국 시인 6명과 우리나라 시인 59명, 총 65명과 그들의 시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그중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당나라 시인이 56명, 남북조 시인이 4명, 송나라 시인이 18명, 원나라 시인이 3명, 명나라 시인이 7명, 고려의 시인이 4명, 조선의 시인이 55명으로. 총 147명이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상·중·하에는 모두 신흠의 무게 있는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mgkang6165@hanmail.net

詩論이 적소에 안배되어 있다.

『청창연담』에서 이루어진 비평은 시론·작품론·작가론·풍격론·텍스트론이 망라되고 있다. 특히 『청창연담 하』는 조선 시인들의 詩話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신흠이 오랜 기간 청요직에 재직하면서 수집한 풍부한 건문이 자료로 활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청창연담』을 분석한 결과 그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중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논평하였다.
2. 동일 주제로 시를 묶고 논평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3. 무게 있는 詩論을 제시하여 한문학 비평의 수준을 끌어 올렸다.
4. 조선 詩壇의 상황과 경향을 개괄 정리하였다.
5. 亡失 작품을 보존하고 있다
6. 작품의 원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7. 생동감 있는 詩話로 조선의 문학 환경을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청창연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1. 비평 대상의 배열이 산만하다.
2. 일부 則은 분리와 통합의 과정을 거쳐 재조정해야 한다.
3. 비평의 범주가 착종되어 있다.
4.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작품과 일화를 다량 수록한 반면 꼭 실어야 하는 시인과 작품이 누락되었다
5. 僞作이 포함되어 있다.
6. 出典名, 作家名, 作品名을 비롯하여 자구의 오류가 산재한다.

『청창연담』의 각종 문제점들은 여타 시화서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청창연담』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본화 작업의 경험과 방법은 여타 시화서의 정본화 작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문학비평, 詩話, 申欽, 晴窓軟談, 『唐詩品彙』, 『文獻通考』

I. 문제의 제기

본고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 시 비평서의 하나로 손꼽히는 『晴窓軟談』의 내적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한문학 텍스트를 합리적으로 이해, 활용하며 완성도 높은 재구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청창연담』은 申欽[1566~1628]의 문학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문학비평론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주목되어 왔고 다수의 성과물이 제출되었다.¹⁾ 그러나 신희이 굴지의 한문학 작가이자 비평가이며, 『청창연담』이 외적으로 정제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이유로 주로 『청창연담』의 가치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청창연담』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연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고는 『청창연담』의 정제된 형식에 가려진 내적 속성과 문제점을 규명해 보았다.

『청창연담』은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된 내용상 특징으로 구분해 본다면 '상'은 주로 唐詩에 대한 비평서이고, '중'은 남북조 시대부터 명나라까지의 시에 대한 비평서이며, '하'는 우리나라의 시화 및 시 비평이다. 당연히 신희는 『청창연담』 상·중·하 간에 모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企圖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권을 구성하는 각기 則들 간에도 질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물들 속에서는 '연속성과 질서가 얼마나 잘 확보, 유지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청창연담』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희의 집필 의식과 방법 등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와 같은 연구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추출되는 것은 당연한 귀추이다. 『청창연담』의 가치를 규명하는 것만으로도 충

1) 『청창연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박수천(2005)의 「청창연담의 비평양상」(『한국한시연구』 13호, 한국한시학회.)에서 시도된 바 있다. 신희 및 『청창연담』 관련 연구사 정리는 박해남(2012)의 『상촌 신희의 문학의 궤적과 의미』(보고서)와 부유섭(2014)의 「신희와 명대 문학—명대 북고시학과 저술을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 6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를 참고할만하다.

분하건만 문제점까지 들추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문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질문 대해서 “이제 한문학 연구자들은 텍스트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싶다.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한 교감 과정을 거치고 못하고 출판된 텍스트가 갖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정본화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저간의 연구자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텍스트로 간주되어 온 『청창연담』의 撰述 과정과 내적 속성을 분석 규명하여 조선 중기 한문학 비평의 환경을 파악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텍스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晴窓軟談 上』의 내적 특징

『청창연담』은 ‘상’이 40칙, ‘중’이 42칙, ‘하’가 70칙으로 총 152칙이다.²⁾ 신흠은 중국의 한시와 조선의 한시 간에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되 그것들을 각각 선별하고 비평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한시는 당시를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흠은 중국의 한시와 우리나라의 한시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시 작품을 ‘한시’라는 큰 범주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기저에 자리한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다만 중국의 한시와 조선의 한시를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놓은 비평서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자를 각 권으로 명확히 구분하려고 한 의식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창연담 상』을 구성하는 40칙은 시론, 텍스트론, 작품론, 작가론, 풍

2) 기왕의 연구에서 『청창연담』의 則의 총수에 대한 계산이 모두 상이하다. 이는 『청창연담』의 則 분류가 갖는 본원적 문제에서 기인된 현상이므로 크게 따질 일은 없었다. 본고의 연구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한 『象村稿』 권50~53의 <晴窓軟談>과 東西文化院(1989)에서 영인한 『韓國詩話叢編』 권3의 『晴窓軟談』이다.

격론을 망라하고 있다. 各 則의 비평 대상 혹은 주제 및 소재, 비평 내용, 신흥이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인용한 문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³⁾	비평의 내용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1	詩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은 小技이지만 貫道之器. • 詩는 문장을 수단으로 삼아 句로 만들어질 따름. • 시는 형이상인 것, 문장은 형이하인 것. • 시는 詞를 위주로 하고 문장은 理를 위주로 하는데, 詞와 理가 모두 적절하게 돼야 한다. • 唐詩나 宋詩만을 편벽되게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唐詩 選集의 종류		唐詩選集으로 『唐詩品彙』·『唐音』·『全唐詩選』·『萬首唐人絕句』·『唐百家詩』가 있는데 그중 『唐詩品彙』와 『唐音』이 가장 정밀하다.		
3	唐詩와 宋詩의 차이		唐詩는 南宗의 一頓하면 바로 本來面目이 드러나는 것과 같고, 宋詩는 北宗의 漸修를 통해 나아가 聲聞이나 辟支佛이 되기를 지향하는 것과 같다.		
4	杜甫, 李白		“杜甫가 謝靈運에서 나오고 李白이 鮑照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두보는 형체에 기대 선 것이 있지만, 이백은 그의 자질이 우연히도 포조와 서로 비슷할 따름이다.		
5	杜甫		두보가 李邕에게 화답한 시는 李邕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6	李邕		李邕의 웅건함은 두보를 능가한다.		
7	張說 蘇頌		質을 거쳐 文에 도달하였기에 때로 질박한 면이 있어서, 얼핏 보면 당 나라의 어투가 아닌 듯하니, 만당 이후로는 점차 正音에서 멀어졌음을 알겠다.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³⁾	비평의 내용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8	魏徵	【述懷詩】 *전문	천하를 도모하겠다는 뜻이 드러나 있다.	작품론, 작가론	『唐詩品彙』 <五言古詩>, 「正始」.
9	虞世南	【從軍行】	수많은 「從軍行」 중에 그의 작품이 가장 뛰어나다.	작품론	『唐詩品彙』, <五言古詩>, 「正始」.
10	王勃	【山亭夜宴】 *전문	세상에 없던 말이다.	작품론	『唐詩品彙』, <五言古詩>, 「正始」.
		「遊梵宇三覺寺」 「麻平晚行」	모두 '正始'의 음이다.		
	虞世南	「侍宴賦韻得前字應制」 「侍宴歸鴈堂」			
	楊師道	「初秋夜坐應詔」			
	楊炯	「劉生」 「送豐城王少府」			
	盧照隣	「春晚山莊奉題」 「文翁講堂」			
	駱賓王	「秋鴈」 「玄上人林泉 二首」			
	蘇味道	「正月十五夜」			
	陳子昂	「暉上人獨坐亭」 「送東萊王學士無競」			
	杜審言	「秋夜宴臨津鄭明府宅」 「和晉陵陸丞早春遊望」			
	沈佺期	「巫山高」 「遊少林寺」			
	宋之問	「春日芙蓉園侍宴應制」 「扈從登封途中作」 「登禪定寺閣」			
	李嶠	「奉和七夕兩儀殿會宴應制」 「詠城」			
	蘇頌	「奉和登驪山高頂應制」 「扈從溫泉奉和姚令公喜雪」			
	張說	「奉和過寧王宅應制」 「岳川燕別潭州王熊」 「鳳閣尋勝地」			
	張九齡	「奉和聖製途次陝州作」 「奉和聖製初出洛城」 「初秋意金均兩弟」			
	崔湜	「江樓夕望」			
	王翰	「子夜春歌」			
	賀知章	「送人之軍中」			
孫逖	「宿雲門寺閣」	풍격론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³⁾	비평의 내용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11	沈佺期	【古意】	‘正始’의 음 중에서 최고이다.	풍격론	『唐詩品彙』, <七言律詩>, 「正始」.
12	李白	【清平調】·【行樂詞】· 【黃鶴樓】	모두 세간에 있지 않던 말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초탈케 하여 크게 고양시킨다.	
13	杜甫	早朝詩	早朝詩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작품론	
14	韋應物	【相逢行】 【雜體】 【寄元校書】 원제는 「初發楊子寄元大校書」 【逢楊開府】 *전문	『唐詩品彙』의 「正宗」 편 뒤에 놓인 작품 중에서 가장 사랑한다.	작품론	『唐詩品彙』 <五言古詩>, 「名家」.
		【擬古 10首】 *제목만 소개	한 편 한 편이 모두 산호 가치와 같아 온 방안을 환하게 만드는 빛을 느끼게 한다.	작품론	
15	王勃	【秋夜長】·【臨高臺】 *제목만 소개	이백과 두보가 말하지 못한 것이다.	齊梁調이다.	『唐詩品彙』·
	盧照隣	【長安古意】 *제목만 소개	이백은 지을 수 있겠지만, 두보는 한 수 뒤질 듯하다.		
	駱賓王	【帝京篇】 *제목만 소개	작품론		
16	李賀	【浩歌】 *전문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기엔 충분하다.	풍격론	『唐詩品彙』, <七言古詩>, 「正變」.
17	溫庭筠	【渭上】 원제는 「渭上題 二首」 *전문	이치가 있으며 뜻도 절로 고상하다.	작품론	『唐詩品彙』, <七言絕句>, 「正變」.
18	唐彥謙	【題仲山】 *전문	절창이다.	작품론	『唐詩品彙』, <七言絕句>, 「餘響」.
			작품론		
19	王建	【過楊州市】 원제는 「十五夜望月寄杜郎中 時會琴客」 *전문	신흥의 자작시 소개	작품론	『唐詩品彙』, <七言絕句>, 「接武」.
			작품론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³⁾	비평의 내용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20	武元衡	【荆帥】 원제는 「酬嚴司空荆南見寄」 *전문	호방하여 읊을 만하다.	
			풍격론	
21	李德裕	「離平泉馬上作」 *전문	시어의 정취가 탁월해 알지 못하는 사 이에 사람을 감동시킨다.	
			작품론	
22	元稹, 白居易		鄭·衛의 음이다.	
			작품론	
23	杜牧	變音이다. 재능이 중횡무진 걸출하여 당해 낼 수 없으니, 사람은 반드시 그 시와 비슷한가보다.	시어는 그대로 새로운 노래, 別曲이다. 작품론	
		長篇【杜秋娘詩】, 【張好好詩】·【郡齋獨酌】 *제목만 소개		
24	李商隱		극도로 섬세하고 고우며 꾸미고 아름답 답지만, 천부적 재능은 변천에게 못 미친다.	
			작품론, 작가론	
25	張祜	【揚州詩】 원제는 「縱遊淮南」	읊으면, 그 때문에 한번 웃게 된다.	
			작품론	
26	杜甫	「曲江」	이 말을 들어 어리석은 자들을 경계시 키지 못해서 애석하다.	『唐詩品彙』 <七言律詩>, 「大家」.
	黃庭堅	「四休居士詩」	작품론	
27	李白	【憶秦娥】, 【菩薩蠻】. *제목만 소개	후세에 樂府를 지은 자들이 많으나, 그의 수준에 모두 미치지 못한다.	
			작품론	
28	詩論		• 律詩도 이미 늘어놓는 문제점이 있건 만, 또 그것을 늘려 排律로 만들었다. • 두보는 심지어 100韻의 시를 지었으 니, 시의 문제점이다.	
			詩論	
29	詩論		시는 말은 다하면서도 뜻은 다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排律을 짓는 자 들은 뜻이 이미 다하였는데도 말이 오히 려 많고, 심한 경우에는 바깥의 物色을 끌어내서 이어 붙이니, 의미가 없다.	
			詩論	

3) 【】는 『청창연담』에 명기된 제목의 표시, 「」는 『청창연담』에 명기되지 않은 原題의 표시.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³⁾	비평의 내용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30	白居易 *郭生이 백거이의 「寒食詩」를 개작한 작품이므로, 백거이가 작가가 아님.	【寒食詩】 원제는 「寒食野望吟」 *전문	이 시를 읽으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작품론		
31	王建	【春詞】 *전문	그대로 하나의 음향이다.		『唐詩品彙』, <七言古詩>, 「正變」.
	張籍	【寄遠曲】 *전문	풍격론		
32	杜甫	「奉和嚴國公軍城早秋」 *전문	두보의 화답시보다 嚴武의 시가 더 좋다.		『唐詩品彙』, <七言絕句>, 「羽翼」.
	嚴武	【軍城早秋】 *전문	작품론		
33	柳宗元	【南澗】 원제는 「南澗中題」 *제목만 소개	비범하여 道의 경지에 들어간 말 같다.		
			작품론		
34	許渾, 劉滄	懷古 주제의 작품	한 시대의 佳作으로 모방해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韓偓	【避地】 원제는 「避地寒食」 *전문 【春盡】 *전문	고단한 여로의 情狀이言外에 나타나니 亂世의 사대부의 자취가 슬퍼할 만하다.		
35	崔魯	【岳陽言懷】 원제는 「春晚岳陽言懷」. *전문	「餘響」 중에서도 정밀하고 적실한 작품이다.		『唐詩品彙』, <七言律詩>, 「餘響」.
			풍격		
36	劉禹錫	【竹枝歌】	대대로 作者가 있지만 두 사람의 작품이 가장 아름답다.		『唐詩合遺』
	李涉		작품론		
37	劉禹錫		• 詩才가 당대에 으뜸이었다. • 제주에 누가 된 시가 많다. • 蘇軾이 젊을 때 유우석의 시를 공부했다고 한다.		
			작가론, 작품론		
38	趙嘏	【倚樓】 *제목만 제시 「宿楚國寺有懷」 *전문	그 자체로 아름답다.		『唐詩合遺』
			작품론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³⁾	비평의 내용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39	詩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淸은 시의 본색이기에, 奇·健은 그 다 음이고, 險僻·怪異·沈着·質實은 詩道 와 거리가 멀다. • 시는 소리 없는 소리와 색 없는 색을 얻어, 맑고 밝고 담박하고 투명하여 외 경이 정신과 만나고 정신이 붓에 호 응하여 표현한 뒤에 異端 外道가 되 지 않는다. 	
			詩論	
40	詩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仙人에게는 보통사람의 기질이 없고, 雅音에는 평범한 곡조가 없다. 	
			詩論	

위에서 정리한 내용에서 보듯이 신희는 『청창연담』의 처음과 끝에 詩論을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시에 대한 관점과 의식을 제시하였다. 제1則과 제3則에서는 당시와 송시의 특징을 理學的, 佛敎的 논리와 개념을 활용하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조선 詩壇의 편향성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제8칙과 제9칙에 율시 시체를 비판하는 견해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상 하나로 통합하여도 무방해 보인다. 이처럼 『청창연담 상』은 신희의 무게 있고 치우침 없는 시론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신희가 편찬한 하나의 唐詩選集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전체가 唐詩로 채워져 있다.

『청창연담 상』에서 언급된 당나라의 시인은 唐彦謙·杜牧·杜甫·杜審言·駱賓王·盧照隣·劉禹錫·柳宗元·劉滄·李嶠·李德裕·李涉·李邕·李賀·武元衡·白居易·蘇味道·蘇頲·孫逖·宋之問·楊師道·楊炯·嚴武·溫庭筠·王建·王勃·王翰·虞世南·元稹·韋應物·魏徵·李白·李商隱·張九齡·張說·張籍·張祜·趙嘏·陳子昂·崔魯·崔湜·沈佺期·賀知章·韓偓·許渾으로 모두 45인이다.(가나다 순)

제6칙에 송나라의 黃庭堅과 그의 시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두보의 「曲江」과 같은 주제를 가진 시의 예로 더해진 것이기에 제외하더라도 무방하겠다.

가장 많이 언급된 시인은 단연 杜甫로 총 5회 則의 소재가 되었다. 그 다음은 3회 則의 소재가 된 이백이다. 2회 則의 소재가 된 시인은 駱賓王·盧照隣·劉禹錫·白居易·蘇頲·王建·王勃·虞世南·張說·沈佺期로 총 10이다.

이로 본다면 신희이 당나라 시인 중에서 가장 주목한 사람은 두보와 이백이다. 그런데 신희은 두보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맹목적 추존은 배격하였다. 그는 두보를 이백의 아래에 두었으니, 제4칙에서 두보를 이백과 비교하면서 “두보 시의 원류가 謝靈運이고 李白 시의 원류는 鮑照”라는 주장에 대해, 두보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이백은 자질이 우연히도 포조와 서로 비슷해서 시도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는 두보보다 이백을 더 우수하게 평가하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5칙에서는 李崱의 응건함이 두보를 능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두보와 화답한 시인의 작품이 그보다 더 우수하다는 견해도 표명하였다. 예를 들면 제2칙에서는 두보의 화답시보다 嚴武의 시가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희이 『청창연담 상』을 편찬하면서 참고한 주요 문헌은 『唐詩品彙』이다. 다만 그것의 인용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제2칙에서 당시선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여 “唐詩를 選集한 것으로는, 『唐詩品彙』·『唐音』·『全唐詩選』·『萬首唐人絕句』·『唐百家詩』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시품회』와 『당음』이 가장 정밀하다.”⁴⁾라고 하면서 『당시품회』와 『당음』이 당시선집으로서 가장 좋다고 평가하였다. 내용으로 볼 때 당시선집에 논평인 제2칙은 시론에 해당하는 제3칙 뒤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위치에 놓은 것은 신희의 의식에서 『당시품회』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위의 표에서 제시한 실제 인용문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창연담 상』에서 거론한 작품의 거개가 『당시품회』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唐詩品彙』는 명대의 高棟이 편집한 唐代的 詩歌選集으로 『唐詩品彙』 90권과 『唐詩拾遺』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唐詩品彙』는 洪武 26년 1393년에, 『唐詩拾遺』는 洪武 31년 1398년에 완성되었으며, 여기에 시인 681명의 시작품 6725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를 初·盛·中·晚의 4기로 나누고 그중 盛唐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詩體를 구분하고 그 안

4) 選唐詩者, 有品彙, 有唐音, 有全唐詩選, 有萬首選, 有百家詩, 而品彙唐音最精.

에서 다시 아홉 가지의 풍격으로 작품을 구분하였으니, 初唐은 正始, 盛唐은 正宗·大家·名家·羽翼, 中唐은 接武, 晚唐은 正變·餘響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끝으로 方外異人은 旁流로 구분하였다. 『唐詩品彙』의 盛唐을 높이고 變流를 구분한 견해는 후대 당시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를 선별하고 비평하는 방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박지원의 「兩班傳」에서 “양반은 『古文眞寶』, 『唐詩品彙』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 글자씩 써야 한다.”⁵⁾고 말한 바와 같이 조선의 사대부에게 『당시품회』는 필독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총90권이 되는 방대한 책이 조선 중기에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보급되었는지는 좀 더 정밀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신흠은 『당시품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출전으로 밝힌 바가 없다. 다만 『당시품회』의 편명인 ‘正始’, ‘正宗’, ‘餘響’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것들은 마치 風格 개념과 같은 느낌을 주기에, 『당시품회』에 대하여 모르는 독자라면 그것이 편명인지 알 수 없다.

『청창연담 상』에서는 『당시품회』의 9格 가운데, 「正始」·「名家」·「正變」·「餘響」·「接武」에서 작품을 인용하였는데, 그중 「正始」에서 인용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正始」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의 제36칙과 제38칙은 『唐詩拾遺』에서 작품을 인용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신흠은 『당시품회』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고루 인용에 활용하였다고 하겠다.

신흠은 『당시품회』를 단순히 작품을 가려 뽑는 자료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평의 착상 근거로도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제11칙에서 “칠언율시 가운데 ‘正始’의 음으로는 의당 沈佺期の 「古意」를 제일로 쳐야 한다.”고 하면서 「古意」 전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唐詩品彙』, <七言律詩>, 「正始」의 첫머리에 놓인 작품은 杜審言의 「大酺」, 「守歲侍燕應制」, 「春日京中有懷」이고 沈佺期の 「古意」는 그 뒤에 놓여 있다. 이로 본다면 신흠은 『당시

5) 古文眞寶, 唐詩品彙, 鈔寫如荏, 一行百字.(『燕巖集』, 「兩班傳」, 朴趾源)

품회』를 주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古意」를 인용한 뒤에 “이야말로 樂府의 獨不見體⁶⁾이다.”라며 자신의 견해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것은 『唐詩品彙』의 「古意」라는 제목 밑에 “『樂府』에는 제목이 「獨不見」으로 되어 있다.”⁷⁾라고 부기되어 있는 말이다. 따라서 신희이 『당시품회』의 말을 자신의 견해처럼 쓴 일례하고 하겠다.

한편 제26칙에서는 두보의 「曲江」과 황정견의 「四休居士詩」를 소개하고 말미에 “이 말을 들어 어리석은 자들을 경계시키지 못해서 애석하다.”⁸⁾라는 평으로 끝맺음하고 있다. 그런데 『唐詩品彙』, <七言律詩>, 「大家」편의 「曲江」시 “江上小堂巢翡翠, 苑邊高塚臥麒麟”의 아래에 “警策之至, 可以動.”이라는 평어가 부기되어 있다. 따라서 신희의 평론은 이것에서 착상하였다고 하겠다.

신희는 호한한 唐詩의 선별 기준과 배열의 방법에 대한 고민의 답을 『당시품회』에서 찾았다. 그래서 대다수의 작품을 『당시품회』에서 뽑고 그 배열도 9품의 순서를 따랐다. 그러나 서두와 중간, 그리고 말미에 무게 있는 자신만의 시론을 배치하는 한편 가급적 작품마다 자신의 평가를 붙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選詩의 자료로 『당시품회』를 적극 활용하였으나, 평론은 1,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견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경험으로 “참으로 시 짓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를 선별하기가 어렵다.”⁹⁾는 말을 하게 되었다.

『청창연담 상』의 문제점은 ‘중’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며, 則의 구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류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4칙 韋應物的 「擬古十首」는 『韋蘇州集』, <雜擬>에 「擬古詩十二首」

6) 獨不見體: 獨不見은 악부 잡곡 가사의 이름이다.

7) 樂府作獨不見.

8) 恨不揭此語以警頑冥也.

9) 『청창연담 하』 제5칙.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기이다.

제16칙의 “身血未凝身問誰.”은 이 시를 인용한 『唐詩品彙』, <七言古詩 十一>, 「正變 下」에 “神血未凝身問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기이다.

제25칙의 ‘張祐’는 ‘張祐’의 오기이다.

제26칙의 “守錢如與抱官囚”은 『山谷集』 「四休居士詩」에는 “守錢奴與抱官囚”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기이다.

제36칙의 “日落西陵望不還.”은 이 시를 인용한 『唐詩拾遺』, 「竹枝歌 三首」에 “月落西陵望不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기이다.

이와 같은 명백한 오류 외에도 자구의 출입이 상당수 존재한다.

則의 재구성은, 예를 들면, 제10칙과 제11칙의 沈佺期 관련 내용은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반대로 제34칙 許渾, 劉滄과 韓偓을 분리해야 한다.

Ⅲ. 『晴窓軟談 中』의 내적 특징

『청창연담 중』은 모두 42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한시를 비평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청창연담 상』과 연속성을 지니며, 당나라 이외의 한시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으려 의도했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갖는다. 비평의 범주는 시론, 작품론, 작가론, 풍격론을 망라하고 있다. 그것의 비평 대상, 비평 내용, 표명 인용 문헌과 실제 인용 문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⁰⁾	비평의 내용	표명 인용 문헌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1	李白(당) 張籍(당) 杜牧(당) 杜甫(당) 白居易(당) 李賀(당)	실재 작품이 아닌 소설 속의 작품.	시구의 시어가 모두 놀랍다.	『樹萱錄』	『容齋隨筆』, <續樹萱錄>, 宋 洪邁 撰
			작품론		

10) 【】는 『청창연담』에 명기된 제목의 표시, 「」는 『청창연담』에 명기되지 않은 原題의 표시.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⁰⁾	비평의 내용	표명	실제
			비평의 범주	인용 문헌	인용 문헌
2	謝靈運 (남조 송)	「遊赤石進帆海 一首」 「石壁精舍還湖中作 一首」	• 작위가 없는 천연의 작품. •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것	『唐子西 文錄』	『詩人玉屑』, 「三謝」, 宋 魏 慶之 撰
		謝朓(남제)	「酬王晉安 一首」		
3	李咸用(당)	「秋日訪同人」 「春日」 「贈來進士鵬」 「冬夕喜友生至」 「紅薇」 「題陳將軍別墅」 「緋桃花」	그의 시는 매우 놀라워서 다른 사람들이 미칠 수 없다.		『詩人玉屑』, 「誠齋論晚唐 詩」.
			작품론		
4	黃滔(당)	【開雁】 원제는 「河南 府試秋夕聞新雁」(『黃 御史集』) 【旅白】 「河南府試秋 夕聞新雁」의 오류. 【遊東林寺】 【退居】	韓偓이나 吳融의 類로 세상에 서 많이 볼 수 없기에 기록한다.		『文獻通考』, 〈經籍考, 集 詩集〉, 「黃 御史集」.
			작가론		
5	謝逸(송)		黃庭堅은 “晁補之나 張耒의 유 이다.”라고 칭찬하였다.	黃庭堅	『文獻通考』, 〈經籍考, 集 詩集〉, 「溪 堂集」.
			작가론		
6	呂希哲(송)	居符離有詩	呂氏의 집안은 대대로 본래 禪學 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 와 같다.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青 溪集」.
7	陸游(송)		劉克莊은 “가죽과 털이 모두 벗 겨졌다.”라고 칭하였다.	劉克莊	『文獻通考』, 〈經籍考, 集 詩集〉, 「劍 南詩藁」.
			작품론		
8	劉應時(송)	「早行」	王安石의 반열에 있는 듯하다.		『文獻通考』, 〈經籍考, 集 詩集〉, 「熙 庵詩藁」.
9	歐陽鈇(송)	「禾山秋興」 絕句 四首」	• 놀라운 표현. • 楊萬里가 “새 울고 꽃 떨어질 제 혼연히 마음 맞는 곳에서 큰 잔에 술 따라 歐陽鈇의 시를 읽으며 바람 타고 雲氣를 타고 싶다.”고 하였다.	楊萬里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歐 陽白威詩」.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⁰⁾	비평의 내용	표명 인용 문헌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10	文소(송)	「秦王卷衣」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서 아는 이 드물기에 그 사람의 생애도 함께 기록한다. • 蘇軾이 “文소는 楚辭·草書·詩·畫의 4絶이다.”라고 하였고, 司馬光도 “그의 시는 瀟灑하다.”라고 했다. 	蘇軾, 司馬光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文與可丹淵集」.
			작가론		
11	王從(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晚唐의 시에 못지않다. • 江西臨社 가운데 두어도 분별할 수 없다.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近齋餘錄」.
			작품론		
12	王績(당)	「野望」 「獨坐」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기 시인 중에서 최고인데, 그의 시는 選集에 몇 수만 실려 있다. • 福德과 지혜를 둘 다 소유한 사람이다.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東臯子」.
			작가론		
13	王維(당)	王摩詰 「與裴迪書」 원제는 「山中與裴秀才迪書」	<p>이 글을 읽고 우수에 잠기지 않은 적이 없다.</p>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王右丞集」.
			작품론		
14	李翱(당)		<p>李翱의 문집에는 없는 시이므로 기록한다.</p>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李文公集」.
			작품론		
15	司空圖(당)	「與李生論詩書」	<p>晚唐의 遺響을 볼 수 있다.</p>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司空圖一鳴集」.
			작품론		
16	蘇舜欽(송)	「夏意」 *전문 「淮中晚泊犢頭」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나라 시인 중 으뜸. •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도 무고를 당해 폐출되니, 애석하다.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滄浪集」.
			작가론		
17	李白(당)	【上雲樂】, 【菩薩蠻】, 【獨漉篇】, 【天姥吟】. *제목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仙人으로, 그의 시집에 실린 작품은 하나도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다. • 상제의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다. 		
			작품론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⁰⁾	비평의 내용	표명	실제
			비평의 범주	인용 문헌	인용 문헌
18	瞿佑(명)		그의 시는 너무 보드랍지만 또 자체로 아름다워 사랑할만하다. 작품론		『西湖遊覽志』, 「才情雅致」, 明 田汝成 撰.
19	蘇軾(송)	「東欄梨花」 *전문 「戲題巫山縣用杜子美韻」 *전문	소식의 시와 문장은 모두 신의 경지인데, 당나라의 시문을 배우는 자들은 항상 그를 헛뜯지만, 만약 아름다운 작품을 뽑아 몇 권으로 간행한다면 당나라의 아름다운 작품들보다 못하지 않으리라. 단지 그의 풍격이 매우 대단하기에 좁은 소견으로 알지 못할 따름이다. 작품론		
20	蘇軾(송)	「秋晚客興」 *전문 「寒食夜」 *전문 「上元侍飲樓上, 三首呈同列」 *전문 「僕年三十九, 在潤州道上, 過除夜, 作此詩, 又二十年, 在惠州, 錄之以付過」 *전문 「夢中絕句」 *전문 「春夜」 *전문 「同景文詠蓮塘」 *전문	소식이 고사를 너무 많이 썼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그의 재주가 너무 많아 내용은 말이 저절로 이루어져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뿐이다. 작품론		
21	蘇軾(송)		고려와 조선에서 모두 소식을 숭상하였으나, 근래는 당시를 추중하여 그렇지 못하니, 이는 어설픈 모방과 유행에 불과하다. 시론		
22	杜甫(당) 韓愈(당)		두보의 시를 주공이 예약 등의 제도를 만든 것에 비유하니, 的實하다. 두보를 잘못 배우면 속되거나 졸렬해지고, 심하면 역에서 읽을 수 없게 된다. 한유의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시론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⁰⁾	비평의 내용	표명 인용 문헌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23	朱熹(송)		주자의 시는 간혹 『문선』 시의 경지에 근접하여 여운이 있으나, 『시경』의 정취에서 터득한 것이 있다. 왕세정이 주희를 조롱하고 책망한 것은 잘못이다. 작가론		
24	王世貞(명)		일세의 출중한 사람으로 일컬어졌고, 스스로도 양옹·사마천·반고에 비견하였는데 노년에 소식의 시를 위주로 하면서 때로 이주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작가론		
25	李攀龍(명)	「送郭子坤下第還濟南」	잡스럽지 않다 작품론		
	何景明(명)	「華容弔楚宮」	• 당시와 형식이 비슷하다. • 당나라 사람들이라도 미칠 수 없다. 작품론		
26	李夢陽(명)	「限韻贈黃子」	격양되고 돈좌해 눈물이 흐르지만, 두보만 못하다. 풍격론		
27	晏殊(송)	「無題」 *전문	• 歌詞를 잘 짓는데, 詩도 아름답다. • 李商隱이 송나라에 다시 출현한 듯하다. 작가론		
28	王世貞(명)	「莫愁樂」 *전문 「西興詞」 *전문 「橫江詞 四首」 *전문 「橫江詞 四首 其二」 *전문 「吳中迎春曲 八首」 *전문 「燕京四時樂 四首 其四」 *전문	시가 매우 대단하여 읊을 만한 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작품론		『弇州四部稿』, 明 王世貞 撰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⁰⁾	비평의 내용	표명	실제
			비평의 범주	인용 문헌	인용 문헌
29	李夢陽(명)	「夏口夜泊別友人」 *전문 「送王冕貢赴縣」 *전문	이백과 두보의 작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 작품론		
30	劉長卿(당)	「長沙過賈誼宅」	新意라고 할만하다. 작품론		
31	王安石(송)	【夜直】 *전문	• 송나라의 절구 중 최고. • 정밀하고 뛰어나 비할 것이 없다. 작품론		
32	趙孟頫(송)	「絕句」	왕안석의 「夜直」과 쌍벽을 이룰만하다. 작품론		
33	歐陽修(송)	「浪淘沙 五」	• 식견 깊은 유학자로 알 뿐 그의 豪氣는 알지 못한다. • 그의 歌詞를 보니 구름 위를 걷기 싫다. • 『花間集』 속의 시인들도 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리라. 작가론, 작품론		
34	黃庭堅(송) 陳與義(송)		歌詞도 좋고 문장의 格韻도 넘겨하기에 이들을 추존해 짓는다면 모두 아름답게 되리라. 작가론		
35	劉誦(송)		시의 예언 시화		『山堂肆考』, 「作詩贈丁謂」, 明 彭大翼 撰
36	王世貞(명)	「夜度娘」 *전문 「楊白花」 *전문 「小垂手」 *전문	陳과 수나라 시기 사이의 음률. 작품론		『弁州四部稿』
37	楊維禎(원)		「西湖竹枝歌」는 격조가 연약한 듯하면서도 맑고 예뻐서 사랑할만하나, 쇠망한 세상의 음률이니, 원나라가 망하려는 조짐이다. 작품론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⁰⁾	비평의 내용	표명 인용 문헌	실제 인용 문헌
			비평의 범주		
38	薩天錫(원)	【西湖絕句】 *六首 전문	「西湖絕句」는 매우 화려해, 體로 『문선』에 들어갈 만하다.		『西湖遊覽志餘』, <才情雅致>, 明 田汝成 撰
			작품론		
39	瞿佑(명)	「清明卽事」 *전문	참으로 문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의 작품이다.		『西湖遊覽志餘』, <才情雅致>
			작가론		
40	劉泰(명)		瞿佑의 유과		
			작가론		
41	姚允言(원)	【看梅】 원제는 「西湖夜宿詩」	아름답고 세련되어 사랑할만 하나 화장한 기운이 너무 많아 아쉽다.		『西湖遊覽志餘』, <才情雅致>.
			작품론		
42	張寧(명)		당나라 시에 매우 근접하였다.		『西湖遊覽志餘』, <才情雅致>.
			작품론		

위의 표에서 보듯이 『청창연담 중』은 남북조시대부터 명나라까지의 중국 시인들과 작품을 소개 비평하기 위한 목적 하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신흠은 가급적 다양한 시인들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창연담 중』에서 則의 소재가 된 인물과 시대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 남북조 2인: 謝靈運(남조 송)·謝朓(남제).
- 당나라 14인: 杜牧·杜甫·劉長卿·李賀·李咸用·白居易·司空圖·王維·王績·李翱·李白·張籍·韓愈·黃滔.
- 송나라 17인: 歐陽錡·歐陽修·呂希哲·劉遁·劉應時·陸游·文全·謝逸·蘇舜欽·蘇軾·晏殊·王安石·王從·趙孟頫·朱熹·陳與義·黃庭堅.
- 원나라 3인: 薩天錫·楊維禎·姚允言.
- 명나라 7인: 瞿佑·劉泰·李夢陽·李攀龍·王世貞·張寧·何景明.

이상의 시인 43인 가운데 蘇軾·王世貞이 3차례, 杜甫·李白·瞿佑·李夢陽이 각각 2차례 則의 비평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두보와 이백은 단

순 언급의 차원에 머물기에 비중이 없으니, 『청창연담 중』은 대체로 당나라 이후 시의 비평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송나라의 시인으로는 蘇軾의 시가 단연 많이 소개 되었고, 명나라의 시인으로는 王世貞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 되었다. 蘇軾의 경우는 제19칙에 2편의 작품 전문, 제20칙에 7편의 작품 전문이 실려 있다. 王世貞의 경우는 제24칙에서 작가론의 차원에서 논평이 이루어져 있고, 제28칙에 6편의 작품 전문, 제36칙에 3편의 작품이 절취 없이 실렸다. 李夢陽은 제29칙에 2편의 작품 전문이 실려 있다. 瞿佑는 제18칙에 작품론의 차원에서 논평이 이루어져 있고, 제39칙에 1편의 작품 전문이 실려 있다.

또 『청창연담 중』의 편찬 목적 중 하나는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시인들이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4칙에서 당의 黃滔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없기에 기록한다.”고 하였고, 제10칙에서 송의 文순은 “세상에서 아는 이 드물기에 그 사람의 생애도 함께 기록한다.”고 하였으며, 제12칙에서 당나라 王績의 시는 “당 초기 시인 중에서 최고인데, 그의 시는 選集에 몇 수만 실려 있다.”라고 하였고, 제14칙에서 당 李翱의 시는 “그의 문집에는 없는 시이므로 기록한다.”라고 하였으니,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에 대해서는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흔히 볼 수 없는 시는 작품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전문을 실었다.

『청창연담 중』은 ‘상’, ‘하’에 비해 체계가 상당히 산만하고 오류가 있는 등 편찬 과정에서 검토와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흥은 기본적으로 남북조·당·송·원·명의 시대 순서대로 작가를 배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남조 송의 謝靈運과 남제의 謝朓가 제1則에 놓여야 마땅한데 제2칙에 놓여 있다. 제3·4칙에 당나라, 제5~11칙에 송나라로 순서가 제대로 배열되고 있다가, 제12~15칙에 다시 당나라, 제16칙에 송, 제17칙에 당, 제18칙에 명, 제19~21칙에 송, 제22칙에 당, 제23칙에 송, 제24칙~26칙에 명, 제27칙에 송의 순서로 무질서하게 시대가 배열되었

11) 당나라 시인 중 劉長卿·李咸用·司空圖·王維·王績·李翱·韓愈·黃滔는 『청창연담 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마지막 제42칙까지 나타난다. 이는 작가의 시대보다는 참고문헌의 활용 양태와 관계가 있다. 『詩人玉屑』에서 제2·3칙의 내용을 인용하고, 『文獻通考』에서 제4칙부터 제16칙까지 인용하고, 『西湖遊覽志餘』에서 제39·41·42칙을 인용하였으니, 하나의 문헌에서 인용을 끝낸 뒤에 다른 문헌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헌을 활용한 인용을 마친 뒤 그것을 소정 순서대로 재배열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청창연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간되었다고 하겠다.

비평 대상의 배열도 산만한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제18칙과 제39칙으로 분산되어 있는 瞿佑 관련 비평은 하나로 통합하거나 나란히 배열하는 것이 좋다. 王世貞 관련 비평도 제24·28·36則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나란히 모아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31칙은 王安石의 「夜直」에 대한 비평이고, 제32칙은 趙孟頫의 「絕句」가 왕안석의 「夜直」과 쌍벽을 이룬만하다는 비평이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외에도 『청창연담 중』은 '상', '하'에 비해 오류가 많은 편이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僞作을 검증 없이 소개한 오류이다. 제1칙에 소개된 李白·張籍·杜牧·杜甫·白居易·李賀의 시는 『樹萱錄』이라는 문헌에서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은 송나라 洪邁가 편찬한 『容齋隨筆』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樹萱錄』은 작자 미상의 신화지괴소설집으로, 제1칙에 소개된 시 모두가 이백·두보 등 저명 시인들을 빙자한 위작들이다. 그런데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결과, 위작들이 책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두 번째는 출전 표기의 오류이다. 예를 들면, 제2칙에서는 출전을 '唐子西語錄'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북송의 唐庚이 편찬한 詩文 관련 語錄 『唐子西文錄』의 오기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신홍이 『詩人玉屑』을 인용하면서 그 오류까지 그대로 습용한 것에 기인한다.

세 번째는 작가 표기의 오류이다. 예를 들면, 제9칙의 歐陽白威는 歐陽白威의 오기이다. 또 제30칙의 「詠漢陵曰, 一種毀原秋草裏, 路人猶拜漢文陵」을 劉長卿의 작품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許渾의 「經秦皇墓」라는 작품이다. 그리고 제35칙

의 “吳中女兒白紵衣 日暮橫塘蕩槳歸 荷花港裏無人見 驚起鷓鴣窠隊飛.”를 왕세정의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李夢陽의 「白紵曲」이라는 작품이다.

네 번째는 제목 표기의 오류이다. 예를 들면, 제4칙의 「旅泊」은 「河南府試秋夕聞新鴈」의 오류이다.

이밖에도 자구의 오류가 상당수 산재한다.

신흠은 『청창연담 중』을 편찬하면서 『容齋隨筆』·『詩人玉屑』·『文獻通考』·『山堂肆考』·『西湖遊覽志餘』를 적극 활용하였지만, 그것들을 출전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제1칙의 인용문헌인 『容齋隨筆』은 송나라 洪邁가 편찬한 筆記書로 모두 五筆, 74권, 1220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容齋隨筆』이 16권, 329則, 『容齋續筆』이 16권, 249칙, 『容齋三筆』이 16권, 248則, 『容齋四筆』이 16권, 259則, 『容齋五筆』이 10권, 135則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이다.

제2·3칙의 인용문헌인 『詩人玉屑』은 송의 魏慶之가 편찬한 시화서로 총 20권이다. 1권에서 11권까지는 詩辨·詩法·詩體 등의 門으로 나누어 있고, 12권 이하는 역대 시인의 작품을 품평한 것이다. 제2칙에서 「唐子西文錄」을 「唐子西語錄」이라 오기하였으니, 이는 『詩人玉屑』의 오류를 습용한 것이다. 제3칙에서도 『시인옥설』의 기록을 습용하여 “燈殘偏有焰”을 “煙殘偏有焰”으로 오기하였다. 이로 본다면 비록 『시인옥설』을 인용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인옥설』이 출전임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위의 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나라 田汝成이 편찬한 『西湖遊覽志』¹²⁾와 명나라 彭大翼이 편찬한 『山堂肆考』도 출전으로 활용되었다.

가장 비중 높은 참고 문헌인 『文獻通考』는 송원 시대의 馬端臨이 편찬한 典章制度 서적으로, 田賦考·錢幣考·戶口考·職役考·征榷考·市糶考·土貢考·國用考·選舉考·學校考·職官考·郊社考·宗廟考·王禮考·樂考·兵考·刑考·經籍考·帝系考·

12) 「藍田遺覽跋」에 의하면, 신흠이 북경에 사신을 갔을 때 田汝成[1503~1557]의 『西湖遊覽志』小本을 구해 왔는데, 그것을 보물로 여기며 그것 외에 책상 위에는 다른 책을 두지 않을 정도로 탐독했다고 한다.(余昔奉使赴燕, 得田禾叔西湖志, 愛其事蹟備具, 山川臨觀之美, 游戲詠歌之什, 皆拊拊無一遺者, 竣事東還, 遂購小本, 爲橐裏寶裝, 暨歸值官閑身暇, 心未嘗不於志嚶嚶, 而幾乎開案無他書矣。(『象村稿』.)

封建考·象緯考·物異考·輿地考·四裔考의 24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348권의 방대한 전적이다.¹³⁾ 『청창연담 중』에서는 제3칙부터 제16칙까지를 모두 『文獻通考』에서 인용하였다. 그런데 다른 문헌의 인용과 달리 『문헌통고』의 인용 양태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여타 문헌에서는 대체로 작품만을 인용한 반면, 『문헌통고』에서는 비평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평까지도 그대로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5칙의 謙逸에 대한 비평은 “『詩人玉屑』에서 인용한 『冷齋夜話』의 비평을 『文獻通考』에서 재인용한 것을 신희이 다시 인용하였다. 이와 같이 제13칙을 제외한 제6칙에서부터 제15칙까지의 비평은 모두 『문헌통고』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는 신희이 가공을 가한 것도 있지만, 轉載의 혐의를 피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IV. 『晴窓軟談 下』의 내적 특징

『청창연담 하』는 조선의 시에 대한 비평을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서 모두 70則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자의 用處와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한국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시를 대상으로 편찬된 『청창연담』 ‘상’과 ‘중’에 비해 ‘하’는 매우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창연담 하』가 작품론·작가론·풍격론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은 『청창연담』 ‘상’, ‘중’과 동일하다. 그러나 『청창연담』 ‘상’, ‘중’이 집필 과정에서 활용된 문헌자료에 견인된 결과 편찬자의 견해와 비평의식이 반영되지 않아 신희의 비평의식을 분석하기 힘들지만, 『청창연담 하』는 그러한 현상이 없기에 신희의 독자적 비평관을 본격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다. 또 작가와 창작 환경에 대한 견문이 풍부한 결과 시학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도 『청창연담』 ‘상’, ‘중’과의 확연한 차이점으로 거론할 수 있다.

13) 『文獻通考』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에 대한 연구로는 김소희(2009)의 『『문헌통고』 경적의 서지학적 가치에 관한 재고 -경부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서지학회』 33호, 한국서지학회)가 참고할 만하다.

『청창연담 하』의 비평 인물 및 대상, 비평 작품, 비평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⁴⁾	비평의 내용
1	李恒福 (1556~1618)	「銀臺, 示朴內翰子龍」 (『白沙集』) *전문 신혼이 받은 작품	기상이 매우 좋다.
2	李恒福	「呈告乞解, 申敬叔貽書, 起之書示」(『白沙集』) *전문	이항복이 병으로 정승의 지위를 사직하기에, 신혼이 出仕를 권면하자, 시로 당시의 형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3	高從厚 (1554~1593)	馬上檄文 *전문	말의 의미가 몹시 놀랍고 절묘하며 對偶가 저절로 이루어졌기에 일시에 전해지며 암송되었다. 뛰어난 인재가 불우하게 생을 마쳐서 애석함.
	宋象賢 (1551~1592)	임진왜란 때 성을 지키다 죽으면서 家親에게 남긴 글 *전문	말이 凜然해, 옛날의 烈丈夫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
4	鄭陳常	「送人」 *전문	은 세상에서 다루어 전하였고 지금까지도 絶唱으로 받들고 있다.
	崔慶昌 (1539~1583)	「溟江樓艇題詠」(『孤竹遺稿』) *전문	정지상의 시에 차운한 「採蓮曲」
	徐益 (1542~1587)	「採蓮曲, 次大同樓船韻」 (『萬竹軒集』) *전문	모두 정지상의 시에 차운한 一代의 가작들인데, 李達의 시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高敬命 (1533~1592)	「溟江樓艇題詠」(『孤竹遺稿』) *전문	
	李達 (1539~1612)	「採蓮曲, 次大同樓船韻」 (『蓀谷詩集』) *전문	
5	申欽	선조의 명에 의한 시선집 편찬 경위	시 짓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를 선별하기가 어렵다.
6	申欽	부제학으로서 선조의 명으로 『周易古經』을 교열하고, 『四傳春秋』의 예를 본받아 『춘추』 左氏·程氏·胡氏의 傳을 모아 편집한 경위	한 시대를 가법계 본 것이 아니라 가슴 속의 품은 생각을 적은 것이다.
		자신의 오언절구 *전문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⁴⁾	비평의 내용
7	鄭澈	「統軍亭」(『松江集』) *전문	• 義州 統軍亭 壯觀의 題詠으로 가장 뛰어난. • 비록 大作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기발하여 전할 만하다.
8	鄭澈	「金沙寺」 (『松江集』) *전문	淸惋하며 激昂케 한다.
9	一家를 만들려고만 힘쓰고 당나라에서 법을 취한 데까지 이른 사람들		
	金淨 (1486~1521)	「江南」(『冲庵集』) 「錦江樓」(『冲庵集』)	회자되는 것으로, 당나라 사람들의 시집 속에 두어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李胄 (1468~1504)	「通州」(『忘軒遺稿』)	金淨에 버금간다고 할만하다.
	崔慶昌	「贈性眞上人」 (『孤竹遺稿』)	부분만으로 그 맛을 알 수 있다.
	白光勳 (1537~1582)	「奉恩寺蓮亭, 次李校理伯生見示之作」 (『玉峯集』)	
李達	「題衍上人軸」(『孫谷詩集』)		
10	申從濩 (1456~1497)	上林春이라는 기생을 사랑하여, 그의 집을 찾아가 지은 시 *전문	당대에 전승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상림춘의 이름도 배나 값이 올라갔다.
	金安國 (1478~1543)	「聽老妓上林春彈琴, 有感, 次前韻」(『慕齋集』) *전문	슬픔과 원망이 격렬하고 간절하니, 가탁한 바를 볼 수 있다.
11	작자 미상	春夢亂於秦二世 羈愁強似魯三家	• 말의 뜻이 모두 새롭고 구절도 굳세니, 심상한 시인의 작품이 아니다. • 朴蘭의 시라고도 한다.
12	元天錫 (1330~?)	【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 元子卽位, 有感, 二首】(『耘谷行錄』) *2수 전문	시어가 질박하여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일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여 숨김이 없으니, 鄭應麟의 『고려사』와 비교해 보면 해·별과 무지개가 서로 차이나는 것 이상이어서 읽노라면 눈물이 흐른다.
		【都統使崔瑩被刑】 원제는 「聞都統使崔公被刑 寓歎, 三首」(『耘谷行錄』) *3수 전문	
		【聞今月十五日, 國家以定昌君立王位, 前王父子, 以爲辛屯子孫, 廢爲庶人】(『耘谷行錄』) *2수 전문	
		【國有令, 以前王父子賜死】(『耘谷行錄』)	
		【韓山君被謫歸長湍】 원제는 「記夢」(『耘谷行錄』) *2수 전문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⁴⁾	비평의 내용
13	白光弘 (1522~1556)	【關西曲】	세상에 유행한다.
	崔慶昌	「箕城 聞白評事別曲」 (『孤竹遺稿』) *전문	한때 傳誦되었다.
14	洪運 (1504~1585)	「上三峽 應製」(『忍齋集』)	시로 지은이의 窮達을 점칠 수 있다.
15	朴淳 (1523~1589)	「自龍山歸築工 舟中口號」 (『思菴集』) *전문	한때 전송되었다.
		【題僧軛】(『思菴集』) *전문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칭송되었다.
		「題二養亭壁」(『思菴集』)	한가로이 자적하며 얽매인 데 없는 뜻과 고상히 세속을 초월한 기상이 모두 구비되었다.
16	盧守慎 (1515~1590)	「寄尹李二故人」(『蘇齋集』) 【謁孝陵詩】(『蘇齋集』) 「用前韻寄澗汶」(『蘇齋集』)	20년 동안 유배살이 한 珍島에서 지은 시 중에서 매우 뛰어난 작품이 많아 人口에膾炙된다.
17	成守琮 (1495~1533)	칠언절구 *전문	읊조리면 그 인품을 상상할 수 있다.
18	徐敬德 (1489~1546)	「述懷」(『花潭集』) *전문	뜻을 둔 바를 상상해 볼 수 있다.
19	成運 (1497~1579)	「村居書事」(『大谷集』) 「寄樾仲」(『大谷集』) *전문	시가 그 인품과 같아서 沖澹閑雅하여 西湖處士의 운치가 있다.
20	曹植 (1501~1572)	「題德山溪亭柱」 (『南冥集』) *전문	성품처럼 문장 역시 奇偉하여 평범하지 않다.
21	曹植	「偶吟」(『南冥集』) *전문	당시 세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잘 형용하였다고 할 만하다.
22	南孝溫 (1454~1492)	【玄琴賦】 *제목만 소개	우리나라 詞賦의 으뜸. 文辭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끝에 五音을 논한 대목에 지극히 은미한 뜻이 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23	李玉峰		근래 閨秀의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함.
24	許蘭雪軒 (1563~1589)	【廣寒殿上樑文】 원제는 「廣寒殿白玉樑上樑文」(『蘭雪軒詩集』) *제목만 소개	기특하고 아름다우며 맑고 웅건하여 四傑의 작품과 비슷한 점이 있다.
		「次孫內翰北里韻」 (『蘭雪軒詩集』)	허균이 몰래 끼워 넣은 표절작이다.
25	車天輅 (1556~1615)	風外怒聲聞渤海 雪中愁色見陰山	장편 대작을 끊임없이 지어 詞壇의 雄文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사람됨이 경박하고 불량함.
26	林梯 (1549~1587)	【珥江曲】-원제는 「珥江歌」(『林白湖集』)	시어가 매우 고우니, 杜牧을 배웠음.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⁴⁾	비평의 내용
27	鄭知常	「醉後」(『東文選』) *전문	놀랍고 기발하며 아름다워, 우리나라의 시로 비견할 작품이 드물다.
28	李穡 (1328~1396)	「洞庭晚靄」(『牧隱集』) *전문	기상이 광활하고 심원하여 다른 사람들을 삼켜 버릴 만하다.
29	林億齡 (1496~1568)	기이하고 거룩한 기상이 있어 고고하게 시속을 따라 처신하지 않았다. 李白을 배워 기법이 매우 대단하였다. 〈息影亭〉, 「水檻觀魚」(『石川詩集』) *전문	세상을 흘려보며 호방한 뜻을 볼 수가 있다.
30	申欽	伯夷·叔齊의 사당을 참배하고 지은 시 *『상촌집』에 없는 작품	이 시가 지나치게 고고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게 고고한 의론은 아니다.
31	鄭澈 (1536~1593)	「夜坐聞鶉」 *전문	시어가 몹시 사람을 놀라게 해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든다.
32	鄭澈	어떤 이에게 준 시의 末句	수려하고 기발하며 意趣 자체가 좋다.
33	黃廷彧	「罷官向芝上, 午坐樓院」(『芝川集』)	의미가 매우 격렬하다.
34	崔崑 (1539~1612)	문장을 지을 때 옛날의 작자를 힘써 따랐고 시는 餘事로 여겼지만 시도 출중하게 기이하고 강건한 구절이 있다. 「龍川, 伏蒙台章下酬, 不得無謝」(『簡易文集』, 〈甲午行錄〉.) 鳥繞上林無樹着, 雁遶南浦故洲非. *『簡易文集』에 없는 작품 「次台韻通錄」(『簡易文集』, 〈甲午行錄〉.)	• 詞語가 정밀하고 절실하며 굳세고 힘차다. • 신희와 함께 북경으로 가면서 길 위에서 주고 받은 시
35	成渾 (1535~1598)	「挽思菴林相公 渾」(『牛溪集』) *전문	朴渾을 잘 애도하였다.
36	鄭澈	「祭趙女式文」(『松江集』)	세상에서 '말을 잘 안다[知言]'고 하였다.
37	金質冲	三年藥裏人猶病, 一夜雨聲花盡開.	• 당시 사람들이 전해가며 암송하였다. • 陳與義(송)의 “客子光陰詩卷裏, 杏花消息雨聲中.”과 비슷함.
38	崔崑	「永平, 次台韻夷齋韻, 二首」(『簡易集』, 〈甲午行錄〉.)	이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다.
39	崔崑	「次宋靈老韻, 二首」(『簡易集』, 〈扈行錄〉.)	해학을 잘하였고 律侶가 자연스럽다.
40	宋翼弼 (1534~1599)	「獨坐」(『龜峯集』)	• 다른 사람들을 초월한다. • 맑고 아름답기가 귀하게 여겨질 뿐 아니라 이치도 절로 이른다.
41	李恒福	「到靑坡, 移配慶源, 又移三水, 正月九日, 改北靑, 延陵諸君携壺, 送于山壇道左」(『白沙集』) *전문	유배 가면서 지은 시로 들은 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⁴⁾	비평의 내용
42	鄭弘翼 (1571~1626)	유배 도중에 지은 시	운치가 있어 읊을만하다.
43	王世貞(明)	【閑史】 원제는 「閑史偶有所感」 (『弇州續稿』) *전문	제왕들에게 혼이 있어 이 曲을 듣는다면 기가 막힐 것이다.
44	李睟光	「御辱」(『芝峯集, <昇平錄>.) 「東野」(『芝峯集, <昇平錄>.) • 지붕은 시를 지을 때 옛 사람들을 힘써 좇아 당나라 景龍과 開元 연간 의 諸子들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였으며 中唐 이하는 논하지 않았다. • 그의 문장 역시 훌륭하게 범도가 있다.	格韻이 맑고 고와 자체로 미칠 수가 없다.
45	조선 시인의 등급 세 부류	和平하고 淡雅하여 일 가의 말을 이룬 자 大家 險瓌, 奇健을 능사로 삼음	李荇 - 비교적 맑다. 申光漢 - 비교적 원만하다 徐居正이 제일이고 金宗直, 成俔이 그 다음이다. 林祥·鄭士龍·盧守慎·黃廷彥·崔崧.
		바른 깨달음을 얻은 자가 드물. 朴淳이 唐代的 詩派를 조금 섭렵하였기 에 지은 시가 매우 맑고 고상함.	
46	盧守慎	유배기 작품	유배 중에 지은 작품들은 매우 맑고 힘차지만 만년에 지은 것은 지나치게 침착하기에 본받아 서는 안 된다.
47	鄭士龍	근체시	근체시에 장기가 있기에, 장편과 절구는 근체시 에 미치지 못한다.
48	館閣體	선조조의 文衡 열거	館閣體는 대부분 應製의 唱和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록 뛰어난 작가라도 시문의 내용과 구성에 결 함이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49	權鐸 (1569~1612)		두보를 법도로 삼아 작품이 매우 맑고 아름다웠기 에 뒤에 시를 짓는 사람들이 그를 으뜸으로 쳤다.
50	李春英 (1563~1606)		• 蘇軾을 매우 좋아하여 성취된 바가 걸출하였 는데 문장이 시보다 뛰어나다. • 근래 문필가들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러나지 않는 이가 없다.
51	金玄成 (1542~1621)		시가 전아하고 당시를 법으로 삼았다.
52	문학에 능하였던 조선의 제왕과 종실	제왕 종실 李婷(1454~1488) 李深源(1454~1504) 李摠	문종이 으뜸이고 성종과 선조의 시문도 하늘이 낸 것이다.
53	귀족 자제들 가운데 시에 능했던 자	申沆(1477~1507) 宋寅(1517~1584)	작품이 淸藻함. 작품이 典密함.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⁴⁾	비평의 내용
54	고려의 문학	李奎報	宏肆
		李穡	浩汗
		조선이 고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	
55	金宗直 (1431~1492)	「仙槎寺」(『東文選』)	그 세심함에 탄복하지 않은 적이 없다.
		「病後將赴善山, 舟過驪州, 登淸心樓, 不與主人遇, 徑還舟中, 愍愍次榰亭韻」(『東文選』)	그 산뜻함에 탄복하지 않은 적이 없다.
		「仙槎寺」(『東文選』)	그 放遠함에 탄복하지 않은 적이 없다.
		김종직의 시를 으뜸이라고 칭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56	朴聞 (1479~1504)		시는 한결같이 소식과 황정건을 모방하였는데, 천부적 재능이 매우 뛰어나 저절로 터득하였다. 장편은 큰물이 흘러 내려듯하며 意致가 있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企圖해도 미칠 수 없다.
57	金守溫 (1410~1481)		문장은 『장자』를 근원으로 삼았는데, 그 發源이 지극히 커서 비견할 것을 볼 수 없다. 시는 생각나는 대로 지었기에 아름답지만 정밀하지 못하다.
58	姜希孟 (1424~1483)		시와 문장이 모두 精緻하고 典雅하여 그대로 徐居正에 필적하지만, 그 규모의 크기로는 서거정에 미치지 못한다.
59	李承召 (1422~1484)		작품은 姜希孟에 버금하나,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부족할 따름이다.
60	成俔 (1439~1504)		徐居正 이후로 몹시 대단하여 고급의 여러 體를 짓지 않은 것이 없어 그 풍부한 저술은 諸公들 가운데 비견될 사람이 없다.
61	成俔 家の 4문장		成俔·成任(1421~1484)·成俔(1427~1456)·成世昌(1481~1548)
62	金安國 (1478~1543)		김안국은 成俔의 문인이다.
63	洪貴達 (1438~1504)		문장으로 중시될만한 뿐만 아니라 사람됨도 뛰어난데, 연산군이 꺼려서 죽었다.
64	金時習 (1435~1493)		김시습은 조선의 伯夷이다.
65	成輅		鄭澈의 문인, 介潔한 선비
66	조선 사람들이 詞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시를 짓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수식하는 솜씨가 부족하여 詞를 만들지 못할 뿐이니, 중국과 성음이 다른 것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67	白居易	「後宮詞」(『白氏長慶集』)	이 시를 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탄식케 한다.

則	비평의 대상	작품명 ¹⁴⁾	비평의 내용
68	柳惲 (465~517)	王世貞의 柳惲 시에 대한 평가 (『弇州四部稿』, <說部 藝苑 卮言 三>)	柳惲의 시는 맑고 아름다우면서 남은 姿容이 있 고 곡절에 운치가 있으면서 남은 자태가 있긴만, 오랑캐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들로 하여금 景龍 과 開元의 시대에 활동하게 했다면, 반드시 <正 宗>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69	나라를 망하게 한 임금의 시	梁 元帝의 시 陳 後主의 시	시가 아름답지만, 작가는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한 임금들이었다. 문장을 '작은 기예'라고 한 말 이 믿을만하다.
70	宋 徽宗		문장이나 서화 등 모든 종류의 기예에 모두 조 예가 있었는데, 유독 잘하지 못한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었다.

『청창연담 하』에서 각 則의 비평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을 정리해 보면, 姜希孟·高敬命·高從厚·權驪·金守溫·金時習·金安國·金淨·金宗直·金質冲·金玄成·南孝溫·盧守慎·柳惲(당)·李奎報(고려)·李達·李穡(고려)·李暉光·李承召·李深源·李玉峰·李胄·李摠·李春英·林億齡·林悌·朴淳·朴閔·白居易(당)·白光勳·徐敬德·徐益·成侃·成輅·成世昌·成守琮·成運·成任·成侃·成渾·宋象賢·宋翼弼·宋寅·申從濩·申沆·申欽·王世貞(명)·元帝(梁)·元天錫(고려)·李婷·李恒福·鄭士龍·鄭知常(고려)·鄭澈·鄭弘翼·曹植·車天輅·崔慶昌·崔崐·許蘭雪軒·洪貴達·洪暹·黃廷戔·後主(陳)·徽宗(송)으로 총 65명이다.(가나다 순) 그중 중국의 시인이 6명, 고려의 시인이 4명, 조선의 시인이 55명이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시인은 鄭澈로 총 5번이다. 그 다음으로 3번 언급된 시인은 申欽 자신을 포함하여 李恒福·崔慶昌·崔崐 3인이다. 그리고 2번 언급된 시인은 金安國·盧守慎·李達·李穡·鄭知常·曹植 6인이다.

신흠은 27살의 나이로 임진왜란 때 都體察使 鄭澈의 종사관으로 있었다.¹⁵⁾ 그리고 28세 때에는 遠接使 李恒福의 종사관이 되었다.¹⁶⁾ 이후로도

14) 【】는 『청창연담』에 명기된 제목의 표시, 「」는 『청창연담』에 명기되지 않은 原題의 표시.

15) 壬辰神宗顯皇帝二十年. 宣祖昭敬大王二十五年. 公年二十七歲.

…… 時 實 陞 國 澈 以 都 體 察 使 來 泊, 以 軍 令 辟 爲 從 事, 辭 以 欲 赴 行 在. 鄭 公 具 奏, 不 得 已 赴 幕 下, 九 月 隨 體 察 使 舟 下 忠 淸 道 唐 津 浦. (『象村稿』, 「領議政申文貞公年譜」.)

16) 癸巳神宗顯皇帝二十一年. 宣祖昭敬大王二十六年. 公年二十八歲.

…… 詔 使 司 憲 出 來, 遠 接 使 李 公 恒 福 辭 以 從 事, 迎 送 于 義 州 境 上. (『象村稿』, 「領議政申文貞公年譜」.)

정철이나 이항복과의 인연은 지속되었으니, 신흠은 정철 문집의 서문¹⁷⁾과 그의 傳¹⁸⁾을 지었고, 李恒福의 神道碑銘¹⁹⁾을 지었다. 신흠과 정철, 이항복의 관계는 그들 글에서 집약적으로 볼 수 있다. 또 崔崧과의 인연은 29살에 서장관으로서 崔崧을 수행하여 북경을 다녀오면서 맺어졌다.²⁰⁾ 따라서 『청창연담 하』에서 정철·이항복·최립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그들이 당대의 대표적 시인이기도 했지만, 신흠과의 교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흠은 다양한 시인을 망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제23칙, 제24칙에서 여류 시인인 李玉峰과 許蘭雪軒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청창연담 하』의 특징적 면모로는 우선 조선 詩壇의 상황과 경향을 개괄 정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제9칙에서 一家를 만들려고 힘쓰고 당나라에서 법을 취한 데까지 이른 사람들로 金淨·李胄·崔慶昌·白光勳·李達을 거론하였고, 제45칙에서는 조선 시인의 등급 세 부류로 和平하고 淡雅하여 일가의 말을 이룬 자, 大家, 險穽·奇健을 능사로 삼는 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동일한 주제로 복수의 시인이나 작품을 묶기 위한 시도가 들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칙과 제3칙은 임진왜란 때의 시, 제4칙은 정지상의 시에 차운한 崔慶昌·徐益·高敬命의 시, 제41칙과 제42칙은 李恒福과 鄭弘翼의 유배 도중의 시, 제52칙은 문학에 능하였던 조선의 제왕과 종실, 제53칙은 귀족 자제들 가운데 시에 능했던 사람들을 묶어서 기술하였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적절한 詩論의 제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제66칙에

17) 『松江集』, 「松江集序」.

18) 『松江別集』 <附錄>.

19) 『白沙集』, 「有明朝臨國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龜城府院君李公神道碑銘 并序」.

20) 萬曆甲午秋, 赴京師, 月汀尹公爲上价, 簡易崔公爲副, 兩公皆以文章名當世, 余亦年二十九歲, 時方致力於觚墨, 蒙兩公許與, 沿途往返蓋七千里, 聯鑣並舍, 遇景輒詠, 詠必酬和, 暨歸盈卷矣.(『象村稿』, <山中獨言>.)

서 조선 사람들이 詞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선의 시를 비평한 『청창연담 하』에 대단히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망실 작품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창연담』에 실린 작품으로 문집에 실려 있지 않는 것이 있으니, 만약 『청창연담』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망실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32칙의 시는 鄭澈의 『松江續集』에서 제목을 「失題」로 붙이고 출전을 『청창연담』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34칙에 소개된 최립의 시 한 연도 『簡易文集』에 없는 작품이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작품의 원형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작품들은 교정을 거쳐 문집에 수록됨으로써 字句가 확정되는데, 대체로 원고를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원형을 알기 힘들다. 그런데 『청창연담 하』에 실린 작품들을 문집 소재 작품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에서 보듯이 제19칙의 「寄樾仲」은 成運의 『大谷集』에 실린 것과 3개의 구에서 글자의 출입이 있는데, 내용상 큰 차이를 초래하게 하는 수준이다.

『청창연담』	『大谷集』
冥鴻獨向海南飛	冥鴻矯翼向南飛
正值秋風落木時	正值秋風木落時
.....
碧雲天外自忘機	碧雲天外自忘飢

반면, 『청창연담 하』는 체제상 정연하지 못하고 잡박한 몇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비록 신흠이 『청창연담 하』의 체제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체적 내용을 본다면 조선의 시인들에 대한 비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창연담 하』에는 제43칙, 제67칙, 제68칙과 같이 중국 시인들의 작품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 있다. 제43칙에서는 王世貞의 「閱史偶有所感」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41칙, 제42칙에서 역올하게 유배를 간 시인들에 대하여 논하면서 역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제67칙의 白居易가 지은 「後宮詞」에 대한 비평과 제68칙의 王世貞의 柳惲 시에 대한 평가는 제66칙의 조선 사람들이 詞를 잘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과 聲音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를 짓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수식하는 솜씨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69칙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임금의 시로 梁 元帝의 시와 陳 後主의 시를 논하고, 제70칙에서 송 徽宗이 문학은 잘하였으나 정치를 못하였다고 한 논평 등은 중국 시인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일종의 시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 「文章小技」라는 이론의 실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신홍이 『칭창연담』 상의 제1칙에서 전제한 「文章小技」라는 These를 끝에서 받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설명 없이 중국의 시인과 시에 별도의 則을 배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고려의 시인과 작품의 배치 순서이다. 李奎報와 李穡의 풍격에 대한 견해가 후반부인 제54칙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의 문인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조선의 문학적 수준이 고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앞부분인 제4칙에 놓인 鄭知常의 「送人」도 그것에 차운한 崔慶昌·徐益·高敬命의 시를 소개하기 위해 기술한 것에 불과하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제27칙에 鄭知常의 「醉後」 전문을 예시하면서 “놀랍고 기발하며 아름다워, 우리나라의 시로 비견할 작품이 드물다.”²¹⁾라는 찬사를 하였고, 제28칙에 李穡의 「洞庭晚靄」를 예시하면서 “기상이 광활하고 심원하여 다른 사람들을 삼켜버릴 만하다.”²²⁾라고 한 것은 고려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와 비평에 해당한다. 비록 고려의 시를 제27과 제28칙에 모았다고 하지만 적절한 위치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제12칙에는 元天錫의 작품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21) 警拔藻麗, 我東之詩, 鮮有其比.

22) 像闊遠, 可吞餘子.

제목과 시를 소개하고 있다. 더욱이 연작시의 경우 2수, 3수의 전문을 모두 소개함으로써 『청창연담 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점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분리되어야 할 내용이 같은 則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철의 시에 대한 비평인 제7·8·31·32則은 하나로 통합하여도 무방하다. 崔岵의 시에 대한 비평인 제34·38·39칙 역시 통합하여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曹植의 시에 대한 비평인 제20·21칙도 통합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문제점은 비평의 범주가 착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창연담 하』는 시화적 성격이 강한데, 시화는 작가의 행적이나 작품 창작과 관련된 일화가 기술되기 마련이므로 여기에 작가론·작품론·창작론 등이 혼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평의 범주에 따른 집필이 쉽지 않았겠지만, 교정 단계를 거쳤다면 어느 정도 질서를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작품과 일화를 다량 수록한 반면 꼭 실어야 하는 시인과 작품이 누락된 점이다. 그 대표적인 시인이 徐居正이다. 제45칙에서 조선 시의 '大家'에 대해 논하면서 "徐居正이 제일이고 金宗直, 成俔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였고, 제58칙에서 "姜希孟의 시와 문장이 모두 精緻하고 典雅하여 그대로 서거정에 필적하지만, 그 규모의 크기로는 서거정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며, 제60칙에서 "서거정 이후로는 成俔이 몹시 대단하다."라고 한 기술을 본다면, 신희는 서거정을 조선 제일의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거정의 작품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V. 결 론

申欽의 『晴窓軟談』은 李仁老의 『破閑集』 이래로 間斷없이 출현한 시화서 편찬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당시의 활발한 시화집 편찬의 풍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신희의 장인인 李濟臣이 『淸江詩話』를, 使行을 배행하였던 尹根壽가 『月汀漫筆』을, 교류하였던 李暉光이 『芝峯類說』을 편찬하였으니,

신흠과 그들과의 문학적 교감은 『晴窓軟談』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 선조의 명으로 『海東詩賦選』 편찬에 참여하였던 경험도 『청창연담』의 편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창연담』의 편찬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海東詩賦選』과의 관련성을 선불리 말하기는 힘들지만, 『청창연담 중』의 인용도서로 적극 활용되었던 『容齋隨筆』·『詩人玉屑』·『文獻通考』·『西湖遊覽志』·『山堂肆考』가 모두 개인이 소장하기 힘든巨帙이기에, 적어도 『청창연담 중』은 館閣 재직 시에 상당 정도 집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西湖遊覽志』는 신흠이 중국에서 요약본을 구득해서 참고도서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신흠은 그것들을 참고 문헌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문학비평서에서 가장 중요한 논평까지 『文獻通考』에서 인용하는 양태를 볼 수 있다.

한편, 『청창연담 상』에서는 『唐詩品彙』와 『唐詩拾遺』를 주요 참고문헌으로 활용하였는데, 『唐詩品彙』가 당시선 중에서는 가장 좋다는 생각을 별도의 則에서 밝히는 한편 『당시품회』의 편명을 여러 차례 노출시켰다. 그러나 '正始', '正宗', '餘響' 등과 같은 『당시품회』의 편명은 마치 風格의 개념과 같은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청창연담』 안에서도 편명인지 알 수 없도록 기술하였기에, 『당시품회』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독자는 그것의 인용 사실을 눈치 챌 수 없다.

『청창연담 상』에서는 총40則에서 당나라 시인 45명과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논평하였고, '중'에서는 총42칙에서 중국 시인 43명과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그리고 '하'에서는 총70칙에서 중국 시인 6인과 우리나라 시인 59명, 총 65명과 그들의 시에 대하여 논평하였다. 그중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당나라 시인이 56명, 남북조 시인이 4명, 송나라 시인이 18명, 원나라 시인이 3명, 명나라 시인이 7명, 고려의 시인이 4명, 조선의 시인이 55명으로, 총 147명이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상·중·하에는 모두 신흠의 무게 있는 시론이 적소에 안배되어 있다.

『청창연담』에서 이루어진 비평의 범주로는 시론·작품론·작가론·풍격론·텍스트론이 망라되고 있다. 특히 『청창연담 하』는 조선 시인들의 시화

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신희이 오랜 기간 요로에 재직하면서 수집한 풍부한 문화계의 견문이 자료로 활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방대한 총서와 유서들을 참고도서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관각에 재직하였기 때문이다. 또 사행에서 중국의 서적을 수집하는 기회를 얻었던 것도 『청창연담』 집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이 신희의 장기인 博覽強記²³⁾와 결합하여 『청창연담』을 완성케 한 것이다.

『청창연담』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할 수 있다.

1. 중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논평하였다.
2. 동일 주제하에 관련 작품을 묶고 논평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3. 무게 있는 시론을 제시하여 조선 비평의 수준을 높였다.
4. 조선 詩壇의 상황과 경향을 개괄 정리하였다.
5. 亡失 작품을 보존하고 있다
6. 작품의 원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7. 생동감 있는 詩話로 조선의 문학 환경을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청창연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1. 비평 대상의 배열이 산만하다.
2. 일부 則은 분리와 통합을 재조정해야 한다.
3. 비평의 범주가 착중되어 있다.
4.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작품과 일화를 다량 수록한 반면 꼭 실어야 하는 시인과 작품이 누락되었다
5. 僞作이 포함되어 있다.
6. 출전 명, 작가 명, 작품 명을 비롯하여 자구의 오류가 산재한다.

위의 문제점 중 몇 가지는 참고 문헌의 활용에서 기인한다. 僞作을 확인 과정 없이 인용하거나 오류를 습용하거나 참고 도서의 인용 순서대로 則을 배열한 것 등이다.

추후, 이상의 『청창연담』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본을 만드는 작

23) 余少頗能記誦, 方十五六歲時, 大肆力於文, 且有志於爲己之學, 於書無所不覽, 而海邦編陋, 無師承之地。(『象村稿』, <山中獨言>.)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신흙의 기획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중·하의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唐詩는 '상'으로 보내고, 그 외 시대의 중국 시는 '중'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각 권 안에서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 한다. 동시에 각종 오류를 바로잡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

『청창연담』의 각종 문제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타 시화서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청창연담』 정본화 작업의 경험과 방법은 여타 시화서의 정본화 작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청창연담 중』의 『문헌통고』 인용 양상 조건표.

연번	『晴窓軟談』	『文獻通考』
1	제4則 有黃滔者, 亦唐季人也. 其聞雁曰: “一聲初觸夢, 半白已侵頭.” 旅泊曰: “餘燈依古壁, 片月下滄洲.” 遊東林寺曰: “寺寒三伏雨, 松偃數朝枝.” 退居曰: “青山寒帶雨, 古木夜啼猿.” 蓋韓偓·吳融之流也, 世不多見故記之.	誠齋序畧曰: “詩至唐而盛, 至晚唐而工.” 御史黃公之詩, 尤奇. 如聞雁 “一聲初觸夢, 半白已侵頭. 餘燈依古壁, 片月下滄洲.” 如遊東林寺 “寺寒三伏雨, 松偃數朝枝.” 如退居 “青山寒帶雨, 古木夜啼猿.” 此與韓致光吳融輩竝遊. (『文獻通考』, <經籍考, 集, 詩集>, 「黃御史集」.)
2	제5則 山寒石髮瘦, 水落溪毛凋. 謝無逸之詩也. 黃魯直稱爲晁·張之流.	冷齋夜話, 無逸工詩能文, 黃魯直讀其詩曰: “最張流也. 恨未識之耳.” 無逸詩曰: “老鳳垂頭噤不語, 枯木槎牙噪春鳥.” 又曰: “貪夫蠹旋磨, 冷官魚上竿.” 又曰: “山寒石髮瘦, 水落溪毛彫.” 皆爲·魯直所稱賞. (『文獻通考』, <經籍考, 集, 詩集>, 「溪堂集」.)
3	제6則 呂榮陽居符離有詩曰: “富貴空中花, 文章木上癩, 要知真實地, 惟有華嚴境.” 呂氏家世本喜禪學, 故其語如此.	後村劉氏曰: “呂榮陽, 居符離, 信民爲·教官, 從榮陽學, 故紫微公, 尤推尊信民. 其詩曰: “富貴空中花, 文章木上癩, 要知真實地, 惟有華嚴境.” 蓋呂氏家世本喜談禪, 而紫微與信民, 皆尚禪學.”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青溪集」.)
4	제7則 客從謝事歸時散, 詩到無人愛處工. 外物不移方是學, 俗人猶愛未爲詩. 陸劍南之作也. 劉後村稱曰: “皮毛落盡矣.”	後村劉氏曰: “……云: ‘客從謝事歸時散, 詩到無人愛處工.’ 又云: ‘外物不移方是學, 俗人猶愛未爲詩. 則皮毛落盡矣.’” (『文獻通考』, <經籍考, 集, 詩集>, 「劍南詩藁」.)
5	제8則 “鷄犬未鳴潮半落, 草蟲聲在豆花村.” 宋末劉應時作也, 蓋在半山老人之行.	又早行云: “雞犬未鳴潮半落, 草蟲聲在豆花村.” 使晚唐諸子與半山老人見之, 當一笑曰: “不虞君之涉吾地也, 何故?” (『文獻通考』, <經籍考, 集, 詩集>, 「熙庵詩藁」.)
6	제9則 宋歐陽伯威, 廬陵人也. 周益公相善, 不利場屋, 篤意於詩. 如 “西風五更雨, 南雁數行書.” “詩成夔子國, 人在仲宣樓.” “細雨雙飛鷺, 寒簑獨釣船.” “夢回千里外, 燈轉一窗深.” “誰知花過半, 纔與酒相尋.” “故人驚會面, 新恨說從頭.” “月白玄猿哭, 更殘洛緯悲.” “語離遽如許, 話舊復何時.” “巷南巷北人招飲, 一雨一晴花耐看.” “有客過門湖海士, 隔籬呼取叩柴門.” “夢回金馬玉堂上, 文在水甌雪碗中.” “青山如故情非故, 芳草喚愁詩遣愁.” “撥憂情人相顧語, 蕭蕭落木不勝秋.” “風色似傳花信到, 夕陽微放柳梢青.” “千里歸來人事改, 十年猶幸此身存.” 絕句四首曰: “戀梅殘紅濕不飛, 楊花雪落水生衣. 年來百念成灰死, 此身還在亂山中.” 爲·憐紅杏臥枝斜, 看到徐暉送亂	廬陵歐陽伯威, 少與周益公, 同場屋, 連戰不利, 遂篤意於詩, 誠齋嘗摘其警句抄之, 如 “西風五更雨, 南雁數行書.” “詩成夔子國, 人在仲宣樓.” “細雨雙飛鷺, 寒簑獨釣船.” “夢回千里外, 燈轉一窗深.” “誰知花過半, 纔與酒相尋.” “故人驚會面, 新恨說從頭.” “天上張公子, 雲間陸士龍.” “月白玄猿哭, 更殘洛緯悲.” “語離遽如許, 話舊復何時.” “巷南巷北人招飲, 一雨一晴花耐看.” “有客過門湖海士, 隔籬呼取叩柴門.” “夢會金馬玉堂上, 文在冰甌雪碗中.” “青山如故情非故, 芳草喚愁詩遣愁.” “撥憂情人相顧語, 蕭蕭落木不勝秋.” “風色似傳花信到, 夕陽微放柳梢青.” “千里歸來人事改, 十年猶幸此身存.” 絕句四首, “戀梅殘紅濕不飛, 楊花雪落水生衣. 年來百念成灰死, 無語送春春自歸.” “桑麻得雨更青葱, 芍藥留春結晚紅. 怪得鳥聲如語好, 此身還在亂山中.” 爲·憐紅杏臥枝斜, 看到徐暉送亂

연번	『晴窓軟談』	『文獻通考』
	<p>冷, 無語送春春自歸。”“癸麻得雨更青蔥, 芍藥留春結晚紅, 怪得鳥聲如信好, 此身如在亂山中。”“爲憐紅杏亞枝斜, 看到除邪豔亂鴉, 又是一春窮不死, 天教留恨看鶯花。”“蓬窓臥聽疏流雨, 却似芭蕉半夜聲, 煙浪蔽天天倚蓋, 略容一點白鷗明”皆警語也。楊誠齋嘗曰: “鳥啼花落, 欣然會心處, 酌大白, 嘯伯威詩, 欲馭風騎氣也。”</p>	<p>鴉, 又是一春窮不死, 天教留眼看鶯花。”“蓬窓臥聽疎雨, 却似芭蕉夜半聲, 煙浪蔽天天倚蓋, 略容一點白鷗明。”公跋云: “鳥啼花落, 欣然會心處, 酌大白, 嘯伯威詩, 欲馭風騎氣也。”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歐陽伯威詩」.)</p>
7	<p>제10則 文與可名同, 蜀人, 進士高第, 操韻高潔, 東坡謂, “與可有四絕, 一楚辭二草書三詩四畫。”溫公亦稱, “其襟識瀟灑, 如晴雲秋月。”有秦王卷衣篇, 爲世膾炙, 其詩曰: “咸陽秦王家, 宮闕明曉霞, 丹文映碧鏤, 光彩相鉤加, 銅螭逐銀猊, 壓屋驚蟠拏, 洞戶鎖日月, 其中光景除, 春風動珠箔, 鸞額金窠斜, 美人却扇坐, 羞落庭下花, 閑弄玉指環, 輕水拖紅牙, 君王顧之笑, 爲任七寶車, 自卷金縷衣, 龍鬚蔚芬葩, 持以贈所愛, 結歡其無涯。”世罕知之, 竝表其人始末.</p>	<p>龜氏曰: “文同, 字與可, 蜀人, 進士高第, 以文學名, 操韻高潔, 畫筆尤妙, 仕至太常博士集賢校理, 元豐初出守吳興, 至宛邱驛, 忽留不行, 沐浴衣冠, 正坐而逝。”東坡謂, “與可有四絕, 詩一楚詞二草書三畫四, 世少知者, 惟子一見, 識其妙處。”……司馬溫公稱, “其襟識瀟灑如晴雲秋月, 塵埃不到, 其爲人可知矣。”……東坡公稱, “其詩謠, 又表出美人却扇坐, 羞落庭下花之句, 予嘗恨不見其全, 比得蜀本石室先生丹淵, 集蓋其遺文也, 於樂府雜錄, 有秦王卷衣篇曰: ‘咸陽秦王家, 宮闕明曉霞, 丹文映碧鏤, 光彩相鉤加, 銅螭逐銀猊, 壓屋驚蟠拏, 洞戶鎖日月, 其中光景除, 春風動珠箔, 鸞額金窠斜, 美人却扇坐, 羞落庭下花, 閑弄玉指環, 輕水拖紅牙, 君王顧之笑, 爲任七寶車, 自卷金縷衣, 龍鬚蔚芬葩, 持以贈所愛, 結歡其無涯.’ 其語意深入騷人闕域。”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歐陽伯威詩」.)</p>
8	<p>제11則 宋王從正夫號三近齋, 其詩如“落木森猶力, 寒山淡欲無, 地迥高樓目, 天寒故國心, 涼風回遠笛, 暝色帶歸舟, 塵心依水淨, 歸鬢與山青。”不減晚唐, 如“墮葉盡應輪燕子, 懶寒猶及占梨花, 一番風雨催寒食, 千里鶯花想故園, 身閒更得憑陵酒, 花早殊非愛惜春, 秋生列岫雲猶薄, 泉瀨懸崖路更慳。”置之江西社中何辨.</p>	<p>三朝奉郎知信州王從正夫撰, 從文正公五世孫, 有詩文四百八十餘篇, 自題三近齋錄錄, 楊誠齋字略曰: “其詩如‘落木森猶力, 寒山淡欲無’, 如‘地迥高樓目, 天寒故國心’, 如‘涼風回遠笛, 暝色帶歸舟’, 如‘塵心依水淨, 歸鬢與山青’, 不減晚唐諸子, 如‘墮葉盡應輪燕子, 懶寒猶及占梨花’, 如‘一番風雨催寒食, 千里鶯花想故園’, 如‘身閒更得憑陵酒, 花早殊非愛惜春’, 如‘秋生列岫雲尤薄, 泉瀨懸崖路更慳’, 置之江西社中何辨?”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三近齋錄錄」.)</p>
9	<p>제12則 唐王績, 即文中子之弟也, 爲唐初詩人之第一流, 而其詩在選中者只數首, 如“牧人驅犢返, 獵馬帶禽歸。”“琴曲唯留古, 書名半是經。”其獨坐云: “問君尊酒外, 獨坐更何須, 有客談名理, 無人索地租, 三男婚令族, 五女嫁賢夫, 百年隨分了, 未羨陟方壺。”績甫世家之盛, 師友之間, 恩誼暖熱, 生理不干于心, 因得一意世外, 不屈節求人, 所謂福慧雙入者也.</p>	<p>陳氏曰: “唐太樂丞太原王績無功撰, 文中子王通仲淹之弟也。”……周氏涉筆曰: “舊傳四聲, 自齊梁至沈宋始定爲唐律, 然沈宋體制, 時帶徐庾, 未若王績剪裁鍛鍊曲盡清元貞剛迥唐詩也, 如云: ‘牧人驅犢返, 獵馬帶禽歸’, ‘琴曲唯留古, 書名半是經’, ……獨坐云: ‘問君尊酒外, 獨坐更何須? 有客談名理, 無人索地租, 三男婚令族, 五女嫁賢夫, 百年隨分了, 未羨陟方壺.’ 無功本席世家之盛, 師友之間恩誼, 暖熱, 生理不干其心, 因得以一意世外, 不屈節求人, 所謂福慧雙入者邪!”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東臯子」.)</p>

연번	『晴窓軟談』	『文獻通考』
10	<p>제13則의 前半部 嘗見王摩詰與裴迪書, 略曰: “夜登華子岡, 輞水淪漣, 與月上下, 寒山遠火, 明滅林外, 深巷寒犬吠聲如豹, 村墟夜春, 復與疎鐘相間, 此時獨坐, 僮僕靜默, 多思曩昔攜手賦詩, 步仄逕, 臨清流也, 當待春中, 草木蔓發, 春山可望, 輕儻出水, 白鷗矯翼, 露濕青阜, 麥雉朝雉, 倘能從我遊乎?”</p>	<p>○夜登華子岡, 輞水淪漣, 與月上下, 寒山遠火明滅, 林外深巷, 寒犬吠聲如豹, 村墟夜春, 復與疎鐘相間, 此時獨坐, 僮僕靜默, 多思曩昔攜手賦詩, 步仄逕, 臨清流也, 當待春中, 草木蔓發, 春山可望, 輕儻出水, 白鷗矯翼, 露濕青阜, 麥雉朝雉, 斯之不遠, 儻能從我遊乎? (『王右丞集箋注』, 「山中與裴秀夫馳書」.)</p> <p>○又有與迪書, 畧曰: “夜登華子岡, 輞水淪漣, 與月上下, 寒山遠火明滅, 林外深巷, 寒犬吠聲如豹, 村墟夜春, 復與疎鐘相間, 此時獨坐, 僮僕靜默, 多思曩昔攜手賦詩, 當待春中, 草木蔓發, 輕儻出水, 白鷗矯翼, 露濕青阜, 麥雉朝雉, 倘能從我遊乎?”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王右丞集」.)</p>
11	<p>제14則 “鍊得身形似鶴形, 千株松下兩函經, 我來欲問西來意, 雲在青天水在瓶。”李翱贈僧詩也, 翱集中無詩, 故書以識之.</p>	<p>石林葉氏曰: “李習之文辭, 高古幾可追配韓退之, 然不長於作詩, 故集中無傳, 今惟傳燈錄, 載其贈藥山僧一篇云: ‘鍊得身形似鶴形, 千株松下兩函經, 我來欲問西來意, 雲在青天水在瓶.’ 氣格與其文全不相類.” (『文獻通考』, <經籍考, 集, 別集>, 「李文公集」.)</p>
12	<p>제15則 某聲花院靜, 旃影石壇高, 綠樹連村暗, 黃花入夢稀, 人家寒食月, 花影午時天, 雨微吟足思, 花落夢無慘, 坡暖冬生筍, 松涼夏健人, 月明虹照雨, 棹控鳥衝人, 夜短猿悲滅, 風和鶻喜靈, 馬色經寒慘, 鶻聲帶晚飢, 客來當意愜, 花發遇歌成, 孤嶼也痕春漲雨, 小欄花韻午晴初, 五更惆悵迴孤枕, 猶自殘燈照落花, 司空圖表聖作也, 可見晚唐遺響.</p>	<p>容齋洪氏隨筆曰: “東坡稱, 司空表聖詩文, 高雅有承平之遺風, 蓋嘗自列其詩之有得於文字之表者, 二十四韻, 恨當時不識其妙.” 又云: “表聖論其詩以爲得味外味, 如 ‘綠樹連村暗, 黃花入夢稀.’ 此句最善. 又 ‘棋聲花院靜, 旃影石壇高.’ 吾嘗獨入白鶴觀, 松陰滿地不見一人, 惟聞棋聲, 然後知此句之工, 但恨其寒慙, 有僧態.” 予讀表聖一鳴集, 有與李生論詩一書, 乃正坡公所言者, 其餘五言句云: ‘人家寒食月, 花影午時天. 雨微吟足思, 花落夢無慘. 坡暖冬生筍, 松涼夏健人. 月明虹照雨, 棹控鳥衝人. 夜短猿悲滅, 風和鶻喜靈. 馬色經寒慘, 鶻聲帶晚飢. 客來當意愜, 花發遇歌成.’ 七言句云: ‘孤嶼也痕春漲滿, 小欄花韻午晴初. 五更惆悵迴孤枕, 猶自殘燈照落花.’ 皆可稱也.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司空圖一鳴集」.)</p>
13	<p>제16則 蘇子美, 宋之詩人之冠, 名舜欽, 杜祁公行之婿也, 爲集賢校理·監進奏院, 坐用故紙錢會客除名, 及廢居蘇州, 買水石作滄浪亭, 益力於文辭, 年四十一卒, 其詩如“別院深深夏簾清, 石榴開遍透簾明, 棹窗滿地日卓午, 夢覺流鶻時一聲, 春陰垂野草青青, 時有幽花一樹明, 晚泊孤舟古祠下, 滿川風雨看潮生.” 卽韋家遺魂爾, 有此才而爲人所誣, 終廢不收, 惜哉! 世道無古今之殊, 奈何乎哉?</p>	<p>鼂氏曰: “蘇舜欽字子美, 易簡之孫, 杜祁公行之婿也, 景祐中進士, 累遷集賢校理·監進奏院, 坐用故紙錢會客除名, 慷慨有大志好古, 工文章, 及廢居蘇州, 買水石作滄浪亭, 益讀書, 發其憤懣於歌詩, 其體豪放往往驚人.” …… 享年四十一. …… 絕句云: “別院深深夏簾清, 石榴開遍透簾明, 棹窗滿地日卓午, 夢覺流鶻時一聲.” 又云: “春陰垂野草青青, 時有幽花一樹明, 晚泊孤舟古祠下, 滿川風雨看潮生.” 極似韋蘇州垂虹亭觀中秋月云: “佛氏解爲銀色界, 仙家多住玉華宮.” 極工. (『文獻通考』, <經籍考, 集別集>, 「滄浪集」.)</p>

〈參考 文獻〉

- 高敬命, 『孤竹遺稿』.
金安國, 『慕齋集』.
金淨, 『冲庵集』.
盧守愼, 『穌齋集』.
朴淳, 『思菴集』.
朴趾源, 『燕巖集』.
白光勳, 『玉峯集』.
徐居正 등, 『東文選』.
徐敬德, 『花潭集』.
徐益, 『萬竹軒集』.
成運, 『大谷集』.
成渾, 『牛溪集』.
宋翼弼, 『龜峯集』.
申欽, 『象村稿』.
元天錫, 『耘谷行錄』.
李達, 『蓀谷詩集』.
李穡, 『牧隱集』.
李胄, 『忘軒遺稿』.
李恒福, 『白沙集』.
林億齡, 『石川詩集』.
林悌, 『林白湖集』.
鄭澈, 『松江集』.
曹植, 『南冥集』.
崔慶昌, 『孤竹遺稿』.
崔豈, 『簡易文集』.
許蘭雪軒, 『蘭雪軒詩集』.

洪暹, 『忍齋集』.

黃廷彥, 『芝川集』.

高棟(明), 『唐詩品彙』.

馬端臨(元), 『文獻通考』.

白居易(唐), 『白氏長慶集』.

王世貞(明), 『弇州四部稿』.

魏慶之(宋), 『詩人玉屑』.

田汝成(明), 『西湖遊覽志』.

洪邁(宋), 『容齋隨筆』.

김소희, 『『문헌통고』 경적고의 서지학적 가치에 관한 재고 -경부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서지학보』 33호, 한국서지학회, 2009.

박수천, 「청창연담의 비평양상」, 『한국한시연구』 13호, 한국한시학회, 2005.

박해남, 「상촌 신희의 문학의 궤적과 의미」, 보고서, 2012.

부유섭, 「신희와 명대 문학 -명대 복고시학과 저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Abstract

Research for Rational Analysis and Reconstitution of 『Cheongchangyeondam(晴窓軟談)』

Kang, Min-koo^{*}

Shin Heum(申欽)'s 『Cheongchangyeondam(晴窓軟談)』 inherited the tradition of the compilation of poetic criticism books of the preceding period and was carried out in the trend of the lively compilation of poetic criticism collections at that time. It was also likely that his participation in the compilation of 『Haedong Shibuseon』 under the order of Seonjo was related to the compilation of 『Cheongchangyeondam』.

The books that Shin Heum used in the compilation of 『Cheongchangyeondam』 were 『Yongjae Essay(容齋隨筆)』, 『Siin-ogseol(詩人玉屑)』, 『Munheontong-go(文獻通考)』, 『West Lake Sightseeing(西湖遊覽志)』 and 『Sandangsago(山堂肆考)』, 『Dangshi pumhwi(唐詩品彙)』 and 『Dangshis seubyou(唐詩拾遺)』. However, he did not reveal the fact that he used them as references.

『Cheongchangyeondam The first(上)』, in total 40 sections, commented on 45 poets from the Tang Dynasty and their works. And, 『Cheongchangyeondam The second(中)』, in total 42 sections, made comments on 43 Chinese poets and their works. In 『Cheongchangyeondam The third(下)』, in total 70 sections, it commented on 6 Chinese poets and 59 Korean poets, a total of 65 poets and their poems. Among them, except for the overlapping figures, 56 poets from the Tang Dynasty, 4 poets from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18 poets from the Song Dynasty, 3 poets from the Yuan Dynasty, 7 poets from the Ming Dynasty, 4 poets from Goryeo and 55 poets from Joseon, a total of 147 poets were subject of criticism. And in all the first(上), second(中), and third(下), Shin Heum's weighty theory were placed in the right place.

The criticism made in 『Cheongchangyeondam』 covers the theory of poetry, works, writers, style, and text. In particular, the 『Cheongchangyeondam The third(下)』 is mainly composed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Kyungpkk Natioanal Universtiy / mgkang6165@hanmail.net

of Joseon poets' poetic criticism, and it is said that the abundant knowledge that Shin Heum collected during his long tenure in important position were used as a materia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eongchangyeondam』, the values are as follows.

1. It introduced and commented on various writers and works of China and Korea.
2. It attempted to bind and comment on poems under the same theme.
3. It raised the level of criticism in Sino-Korean literature by presenting a weighty theory of poems.
4. It summarized and arranged the situation and trends of Joseon Dynasty's poetical circles.
5. It preserved lost works.
6. It made it possible to know the original form of the work.
7. The lively poetic criticism mad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literary environment of Joseon Dynasty.

On the other hand, 『Cheongchangyeondam』 also contains the following problems.

1. The arrangement of the object of criticism is distracting.
2. Some sections have to be readjusted through the process of separation and integration.
3. The category of criticism are entangled.
4. While it contains a large number of works and anecdotes of people who are close to him, the poets and works that must be put in are omitted.
5. A forgery is included.
6. There are numerous errors in the wording, including the name of the reference, the name of the writer, and the name of the work.

The problems of 『Cheongchangyeondam』 are the same in other poetic criticism books. Therefore, the experience and methods of the formal copy work to solve the problems shown in 『Cheongchangyeondam』 could be applied to the formal copy work of other poetic criticism books.

【Key words】 Literary Criticism, Poetic Criticism, Shin Heum(申欽), 『Cheongchangyeondam (晴窓軟談)』, 『Dangshi pumhwi(唐詩品彙)』, 『Munheontong-go(文獻通考)』.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3일, 게재확정일 : 6월 22일

